

수산식품 해외시장 월간동향

1. 관할지역 현장이슈

▶ EU, 불법 살충제 및 농약 퇴치 위해 단속강화

- EU의 식물보호법 강화를 통해 EU의 식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병행수입제의 악용 여부 및 그 상세 내역을 조사하여 단속할 예정임
- 이는 유럽의 세관통관과 교역품들에 대한 조사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을 암시 함.
- EU 측은 불법 살충제 및 농약의 주요 유통경로는 병행수입제를 악용한 밀수로 추정, 국가 간 세관 통과 절차에 대한 협조요청 및 감시 강화를 촉구함
- 그간 EU에 유통되던 불법살충제 및 농약은 EU의 농업 종사자들에 치명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건강 및 공공안전을 위협해왔음
- 현재 EU의 세관은 미심쩍은 불법살충제 또는 농약일지라도 제3국이 최종 목적지일 경우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불법살충제 및 농약의 단속에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힘
- 유럽에 유통되는 불법살충제의 근원지는 대부분 중국인 것으로 밝혀짐

<자료 : the Parilament.com>

▶ EU 금융거래세(FTT) 도입이 미치는 영향과 각국 반응

-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에서 발표한 유럽의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도입과 관련 각국의 반발과 함께 세계 금융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음.
- EU 금융거래세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상위 4개 국가들에 의해 계획되고 발표된 것으로, 11개 EU회원국이 세금을 통해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수백억 유로의 자금을 융통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금융거래에 0.1%의 세금을,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임.
- 집행위는 11개국에서 300억 규모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는 반면 0.3%의 EU GDP 감소, 15%의 증권 및 채권거래 감소와 더불어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의 75%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영국은 금융거래세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과 부담을 나누는 것이라며 금융거래세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함.



- London's financial centre – a key source of UK-EU disputes (Photo: howz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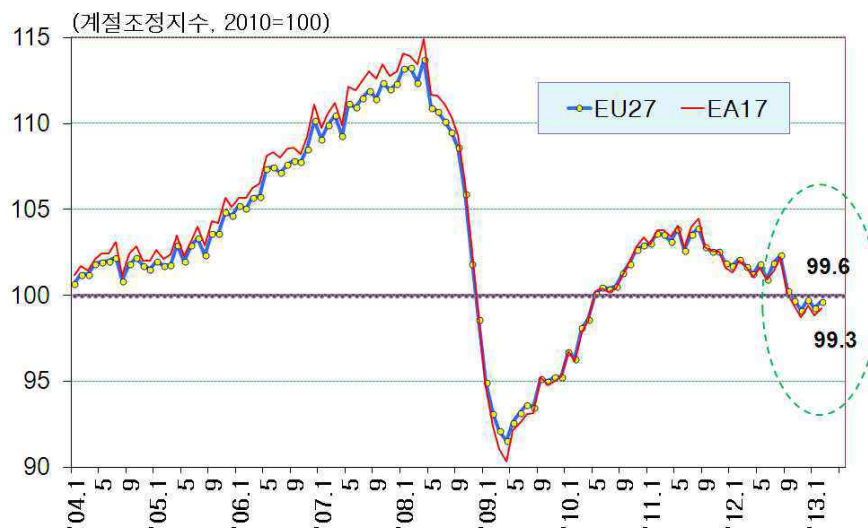
- 금융거래 비용을 급증시킬 이번 금융거래세는 도입국 뿐만 아니라 해당국과 거래하는 나라에도 적용될 예정임.
- 이는 기업 간의 채권거래, 금융서비스 등에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되며 세계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자료: <http://euobserver.com/economic/119882>>

▶ 2013. 2월 EU 및 유로지역 산업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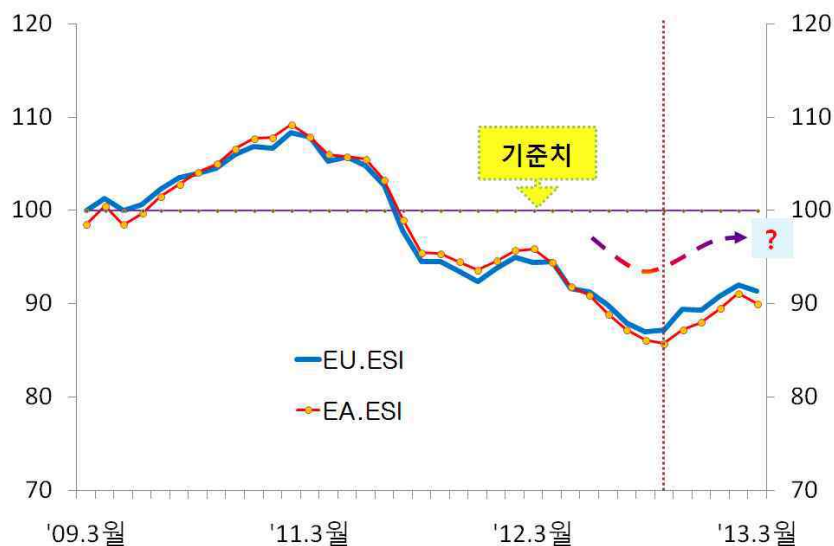
- 2013. 2월중 EU(27개국) 및 유로지역(17개국)의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모두 0.4%씩 증가
- 품목별 증감률
 - ※ 에너지: EU27: +1.8%, EA17: +2.6%
 - ※ 자본재: EU27: +0.6%, EA17: +0.9%
 - ※ 내구소비재: EU27: 0.0%, EA17: +1.3%
 - ※ 비내구소비재: EU27: -1.3%, EA17: -1.5%
- 국가별로는 자료 이용 가능한 EU 회원국 22개국중 10개국에서 생산이 증가 - 네덜란드와 슬로베니아(모두 +3.4%), 체코(+1.6%), 포르투갈(+1.3%) 순으로 증가율이 컸으며, 독일(+0.9%)과 프랑스(+0.8%)는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
- 다른 12개국에서는 감소 - 에스토니아와 몰타(모두 -3.9%), 리투아니아(-3.7%)와 덴마크(-3.0%) 순으로 감소율이 컸으며, 스페인(-1.3%)과 이탈리아(-0.8%)는 전월의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
- 전년 동월 대비 EU 및 유로지역 생산이 각각 2.5% 및 3.1% 줄어들어 2011년 말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
- 1월(EU 및 EA 모두 -2.4%)보다 감소세가 다소 확대
- 생산지수(2010=100, 건설업 제외)가 기준치인 100 수준을 하회하는 모습
- 2013.2월 현재, EU 및 유로지역의 생산지수는 각각 99.6 및 99.3 기록

EU 및 유로지역 산업생산지수 추이



- 2013.2월 유로지역의 산업생산 증가율(+0.4%)은 전문가들의 예상(+0.2%, Bloomberg News Survey)보다 높은 것으로 전월의 감소(-0.6%)에서 반전된 모습
- 대체로 많은 회원국에서 생산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규모가 큰 독일(+0.9%)과 프랑스(+0.8%)가 생산 증가를 주도
- 그러나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아직 경기수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해 10월을 저점으로 점차 상승중이던 경제주체의 심리지표인 경기 체감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
- ESI 지수는 산업생산(weight 40%), 서비스(30%), 소비자(20%), 건설(5%), 소매판매(5%) 등 5개 부문의 개별 체감지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가중합계하여 기준치(100, 1990~2012년중의 평균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표시
- 2013.3월중 EU 및 유로지역 각각 91.4 및 90.0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EU 및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ESI) 추이



(*기준치 100 (1990~2012년 기간중 평균) / 자료: EU 집행위)

- 전문가들은 최근까지의 산업활동 부진을 감안해 금년 1/4분기의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유로존은 2011.4/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 향후 2~3개월 동안 발표될 실물지표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ECB 등 EU정책 당국의 정책 stance가 결정될 전망
- Draghi ECB 총재는 지난 4.4일 통화정책 결정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상황 추가 악화 시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다각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자료: 이상호 (한국은행 차장) / 주벨기에·EU대사관)

2. 수산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유럽의 농림수산물 수입규모는 '13년 1월 한 달 기준, 36,316,654 천 유로, 한화 약 52.2조 원으로 집계됨.

○ '13년 01월 통계를 보면, 세부 품목 중에서는 곡류와 가축류가 각각 29.4% 와 24.2% 수입 규모가 큰 폭 증가한 반면, 임산물 중 살아있는 나무/식물과 목재/목재 부산물은 각각 -6.6% 와 -5.4%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됨.

< '13년 01월 유럽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 유로, %)

구분	HS 코드	품목명	01 월 당월		'13년 01-01월 누계	
			금액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농산물	07	식용 야채 및 뿌리	2,016,759	11.7	2,016,759	11.7
	08	식용 과일 및 견과류	2,725,456	10.6	2,725,456	10.6
	09	커피 및 차	1,349,043	-5.6	1,349,043	-5.6
	10	곡류	1,798,020	29.4	1,798,020	29.4
	11	제분 맥아분 전분	351,380	12.2	351,380	12.2
	12	씨기름	1,689,729	6.3	1,689,729	6.3
	13	식물성 추출물	164,051	2.2	164,051	2.2
	15	식물성 기름	2,115,799	3.0	2,115,799	3.0
	17	당류 및 당류 제과	975,473	8.6	975,473	8.6
	18	코코아	1,509,661	2.8	1,509,661	2.8
	19	가공 곡류	1,615,251	13.0	1,615,251	13.0
	20	가공 야채/과일/견과류	1,661,412	2.7	1,661,412	2.7
	21	기타 가공식품	1,423,991	5.3	1,423,991	5.3
	22	음료/식초 외	2,375,856	10.1	2,375,856	10.1
	24	담배	1,049,554	-3.6	1,049,554	-3.6
		소계	22,821,435		22,821,435	
축산물	01	가축	698,307	24.2	698,307	24.2
	02	식용육류	2,909,661	8.9	2,909,661	8.9
	04	유제품/꿀	2,625,570	6.7	2,625,570	6.7
	05	기타육류제품	305,240	7.6	305,240	7.6
		소계	6,538,778		6,538,778	
임산물	06	살아있는 나무/식물	666,070	-6.6	666,070	-6.6
	44	목재/목재 부산물	2,676,995	-5.4	2,676,995	-5.4
		소계	3,343,065		3,343,065	
수산물	03	어류/갑각류/이매패류	2,234,356	8.4	2,234,356	8.4
	16	가공어류 및 갑각류	1,379,020	9.6	1,379,020	9.6
		소계	3,613,376		3,613,376	
합계			36,316,654		36,316,654	

<자료: kita.net>

▶ 주요 품목 수입동향

- 유럽시장에서 한국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면류와 버섯류로, 수입규모 6 위와 7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유럽 수출규모는 '13년 1월 각각 2,008 천 유로, 662 천 유로로 집계 됨.
- HS 코드 0304의 어육 (신선, 냉장 또는 냉동 된 생선 필레와 어육 /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esh, chilled or frozen) 이 금년 1월 수입규모 39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유럽 수출규모는 1,257 천 유로로 전년 동월 대비 85.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품목 수입통계(누계기준)>

(단위: 천 유로, %)

품목명 (HS코드)	'12년 1-12월	'13년 01월	증감률	1위		2위		3위		한국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순위	금액
사과/배 (0808)	2,924,446	200,714	25.0	이탈리아	59,491	프랑스	35,437	네덜란드	32,061	63	
버섯 (070959)	295,335	18,046	-4.2	폴란드	6,060	네덜란드	3,236	스페인	1,717	7	662
면류 (190230)	599,809	56,360	9.9	이탈리아	19,177	중국	6,352	독일	5,029	6	2,008
이매패류 (0307)	3,154,632	211,711	-17.9	모로코	33,323	스페인	28,253	인도	16,574	39	278
어육 (0304)	7,256,362	613,171	-2.0	중국	96,490	노르웨이	69,036	네덜란드	44,800	39	1,257

<자료: kita.net>